

수영계 비리 일파만파... 지역 체육계 긴장

횡령 혐의 전남수영연맹 전무 체포...전남체육회 압수수색 축구 이어 파문...체육계 전반 수사 확대될 지 예의 주시

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를 체포하고 전남수영연맹과 전남도체육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수영연맹의 고질적 비리 뿐 아니라 다른 체육 종목 전반으로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검이 앞서 지역 대학 축구감독인 대학축구연맹 전무이사를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영연맹 비리 수사가 통합체육회 출범과 연관된 것이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수영 비리 드러나...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과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고교 수구부 코치를 받고 있는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활동하는 전남수영연맹과 전남도체육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의 경우 검찰 요구에 따라 ▲2010~2015년 운동경기부 지원선수 명단 ▲수영연맹 우수선수 명단 및 훈련·지원비 내역 ▲특정 수영선수 2명 지원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종목으로 확대되나...지역 체육계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광주지검이 지난달 26일 배임수체 혐의로 대학축구연맹 전무이사 양모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

행중인 만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비리 수사를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상납 비리, 선수 훈련·지원비 횡령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축구를 신호탄으로 검찰의 칼끝이 향후 광주·전남 체육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닐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예정됐던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가 대한체육회 관련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가 하면, 통합진행상황에 대한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간 표명화 된 갈등을 검찰 수사와 연결하려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법감청 통제장치 마련하라”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촉구

전국 전파관리소 감시 관행 면밀 조사 요구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불법감청 사건<광주일보 2월24·25·26·29일자 6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일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파위적인 국민 생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와 같이

불법 도박단에 대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감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과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드러난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파 감시의 관행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역의 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 및 탐지 용도로 어떠한 능력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나아가 전파관리소의 전파 감시 및 탐지 업무가 전파법이 정한 임법목적 범위 내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파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혜 저버린 ‘편의점 복면강도’

도와준 동창 관리하는 편의점 털다 손님에 붙잡혀

지난달 29일 새벽 3시30분께 광양시에서 편의점 관리인으로 일하는 A(30)씨는 경찰에 인계된 고등학교 동창(30)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이날 혼자서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는 말로만 듣던 ‘편의점 강도’를 만났다.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온 강도는 고무망치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A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고무망치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 순간 허모(20)씨 등 3명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이 편의점을 찾았고, 허씨 일행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강도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강도야!”라고 소리쳤고, 강도는 도망치다 넘어져 허씨 일행에게 붙잡혔다.

A씨는 “강도를 잡았다”라는 허씨 일행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강도의 얼굴을 확

인하는 순간 허탈함에 고개를 떨구어질 수밖에 없었다. 강도가 고등학교 동창 박모(30)씨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A씨는 최근 박씨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날 혼자서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는 말로만 듣던 ‘편의점 강도’를 만났다.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온 강도는 고무망치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A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고무망치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 순간 허모(20)씨 등 3명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이 편의점을 찾았고, 허씨 일행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강도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강도야!”라고 소리쳤고, 강도는 도망치다 넘어져 허씨 일행에게 붙잡혔다.

A씨는 “강도를 잡았다”라는 허씨 일행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강도의 얼굴을 확



가마 탄 초등 신입생 함박웃음 백일초에서 개명된 광주 성진초등학교(교장 이금란)가 2일 오전 서구 쌍촌동 학교 강당에서 개명 이후 첫 행사로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이 끝난 뒤 6학년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들을 가마에 태워 나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식산업센터 공사 임금 체불로 건립 차질

광주시가 발주한 220억원 규모의 ‘광주지식산업센터’ 공사과정에서 수역원의 임금이 체불돼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이 센터는 임금 체불로 현재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일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참여한 건설장비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A건설로부터 인건비, 건설장비 임대료 등 모두 5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B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A건설사가 공사 초기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만 지급해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는 한푼도 주지않고 있다”며 “피해를 본 사 람들만도 1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 “한 달 전부터 A건설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설날(2월8일) 전까지는 밀린 임금 등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급

지 버티고 있어 일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고,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청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밝혔다.

사본은 A건설사가 원청업체인 B건설사로부터 받은 16억원의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4일 관계자들을 만나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현재까지는 오는 6월 준공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 222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지식산업센터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옛 광주과학관 부지 연면적 1만165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6월 준공되면 지식산업 업체 등 4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 지킴이 자원봉사 80대 고독사... 열흘만에 발견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홀몸노인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A(81)씨가 숨져 있는 것을 딸(4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미뤄 A씨가 약 열흘 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스탠스 삽입 수술을 받은 등 심장질환을 앓으면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해왔다.

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인을 통제하는 일을 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A씨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학교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심장질환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사)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은)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경매교육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함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두암동 (토 46평, 건 41평) 광주문화초등학교 남측,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건444평) (1층-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40평,건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본건축차량가능 감정가7천백 → 최저가 7천백	직인구합니다. 부동산, 매매, 배우실문.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북구 중흥동 (토 46평,건50평) 건물 깨끗, 실입주 주택 적극추천 감정가2천 → 최저가 8천5백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1. 서구 농성동 (토 41평, 건 45평) (1층 점포, 2층주택)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2. 서구 풍암동 (토 68평,건 170평) (1층 식당, 2층 사무실,3층주택)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3.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의은행광주지점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010-6834-4800 010-6832-9700